

# 성병 (性病) 이야기

마지막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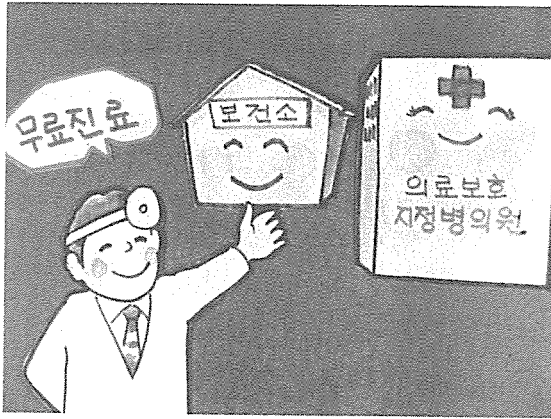
## 紙上강좌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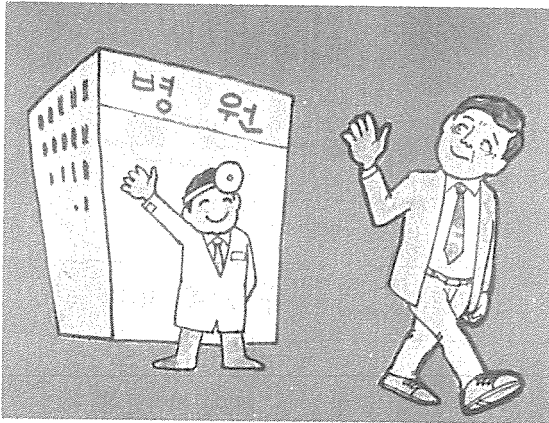
부끄러운 일이라고 병을 감추고 있으면 철저한 치료를 하기 어렵게 됩니다. 의사를 찾아 솔직하게 털어 놓아야 하며, 부부가 함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치료하고 상대가 치료 않으면 다시 전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이 이런 병에 걸려있음을 알 때에는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갖지 말고 치료해야 합니다. 본인 한 사람의 불행으로 끝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치료는 끝까지 철저히 해서 병원균이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재발하게 되고 재발하게 되면 약을 더욱 강하게 써야하며 치료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성병진료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의 의료보호 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누구나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보건소를 포함한 전국의 의료보호 지정의료기관에 가서 주민등록증 신분증을 제시하고 진료를 신청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의 비밀은 절대로 보장됩니다.



모든 성병은 현대의학으로 완치될 수 있습니다. 방황하지 말고 비밀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물쭈물하다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여 질병을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불임증등으로 평생을 두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득이할 경우는 예방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성행위시에 콘돔을 사용하면 성병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 감염 우려자와의 키스는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 성행위 직후에 소변을 보거나, 깨끗한 물과 비누로 음부를 세척하는 것도 약간의 도움은 된다고 하지만 크게 믿을수는 없습니다. "마이신 두알"은 말이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예방책은 감염 우려자와의 성관계를 피하는 것 뿐입니다. <끝>